

圖書館 情報學 學術 세미나 參與度 分析

전남대학교 도서관 자료1과장
金 成 守(협의회 간사)

□ 目 次 □

- | | |
|----------------|-------------|
| 1. 概 觀 | 3. 세미나의 問題點 |
| 2. 分析趣旨 및 그 內容 | 4. 結 言 |

1. 概 觀

대학도서관은 국가 사회발전을 위한 학문연구와 기술개발을 통한 지도자를 양성하는 대학 교육목적을 지원하는 학술 정보센터로서 그 기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면서도 열악한 근무환경과 낮은 보수를 받으면서 항상 도마위에 놓인 고기처럼 대학 구성원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점을 감안하여 대학간의 상호교류를 통한 협력체제와 친목도모 그리고 사서들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하여 1963년 2월 국립중앙도서관내 한국도서관협의회 사무국에서 제1회 국립대학 도서관협의회 총회를 개최하였다.

1978년 4월 제26차 국공립대학도서관 협의회 총회에서 현장경험을 통한 도서관학 이론과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1978년 8월 제1차 도서관실무자 세미나를 서울대학교 도서관에서 개최하기로 결의하였다.

그 후 도서관실무자 세미나의 질과 상위직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1989년 제12차 도서관실무자 세미나에서는 1989년 7월 제13차 세미나부터 도서관 정보학 학술세미나로 개칭하기로 결의하였으며 1995년 2월 제24차 도서관 정보학 학술세미나를 공주대학교 도서관에서 개최하고 오늘에 이르렀다. 이를 통하여 현장에서의 경험과

학술적인 이론을 겸비한 각 대학 도서관에서 근무한 사서들이 함께 공동 관심사를 토의하여 보다 발전적인 도서관 서비스 개선과 상호협력체제가 구축되었음은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한 차원 높은 도서관 정보학 학술세미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2. 分析趣旨 및 그 内容

본 대학도서관이 1993년 7월 1일부터 國公立大學 圖書館協議會長校로 선임되어 제가 본 협의회 간사직을 맡아오면서 도서관 정보학 학술세미나에 참석하여 지켜본 결과 어느 직종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현장경험과 학문적인 배경을 토대로 실무책임자들이 공동관심사를 함께 토의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데 흐뭇하게 생각하면서 더욱 바람직한 학술세미나 場이 되기위한 희망에서 1988년 8월 제11차 도서관 실무자세미나에서부터 1995년 2월 제24차 도서관 정보학 학술세미나까지 직급별참여도, 직급별발표자, 남녀별 참여도, 주제별 발표자 현황을 분석하여 앞으로 우리들의 位相을 定立하고 이를 보다 발전적으로 昇華시켜 質과 量적인 면에서 더욱 바람직한 圖書館 情報學 學術세미나 場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2. 1 職級別 參與圖

직급별 참여도는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5-6급과 7-8급 사서들이 21%와 52%의 참여율을 보여 주고 있어 도서관의 실무자 세미나는 7-8급이 주로 참여하고 있는 느낌을 주고 있으며 5-6급의 참여율이 저조함을 알 수 있다.

〈표 1〉 직급별 참여도

회차	직 급 개최대학도서관	직급별 참여도 (%)							기타 (%)	계
		5(%)	6(%)	7(%)	8(%)	9(%)	기능 (%)			
11	한국교원대(88.8)		12 (14)	30 (35)	20 (23)	6 (7)	17 (20)	1 (11)	86 (100)	
12	서울대(89.2)	1 (1)	21 (26)	17 (22)	15 (19)	5 (6)	20 (25)	1 (1)	80 (100)	
13	경북대(89.8)	2 (2)	20 (19)	34 (33)	15 (14)	2 (2)	29 (28)	2 (2)	104	
14	전남대(90.2)	2 (2)	22 (21)	27 (26)	25 (24)	4 (4)	23 (22)	1 (1)	104	
15	전북대(90.8)	2 (2)	21 (20)	29 (29)	29 (29)	7 (7)	13 (13)		101 (100)	
16	충남대(91.2)	2 (3)	11 (15)	26 (35)	16 (21)	7 (9)	13 (17)		75 (100)	
17	충북대(91.8)		15 (19)	18 (24)	24 (31)	10 (13)	8 (11)	2 (2)	77	
18	경상대(92.2)		13 (17)	24 (32)	14 (18)	15 (20)	10 (13)		76 (100)	
19	부산대(92.8)	1 (1)	21 (24)	25 (28)	16 (18)	10 (12)	14 (16)	1 (1)	88 (100)	
20	강원대(93.2)	1 (1)	14 (16)	16 (19)	32 (37)	8 (9)	16 (18)		87 (100)	
21	제주대(93.2)	1 (1)	23 (27)	26 (31)	16 (19)	6 (7)	9 (11)	3 (4)	84 (100)	
22	한국교원대(94.2)	2 (3)	10 (14)	23 (32)	16 (22)	4 (5)	12 (16)	6 (8)	73 (100)	
23	강릉대(94.8)	1 (1)	10 (12)	15 (18)	25 (29)	11 (13)	16 (19)	7 (8)	85 (100)	
24	공주대(95.2)	3 (4)	16 (20)	22 (28)	20 (26)	5 (6)	9 (11)	4 (5)	79 (100)	
계		18 (2)	229 (19)	332 (28)	283 (24)	100 (8)	209 (17)	28 (2)	1199 (100)	

2. 2 職級別 主題發表者 現況

직급별 주제발표자의 현황을 살펴보면 <표2>에서와 같이 6-7급이 28%와 22%의 참여율(50%)을 보여줌으로서 도서관에서 실무자임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에 5급(6%)의 참여율이 너무 저조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기타 직급에 있는 사람들의 참여율이 비교적 높다고 생각되어 도서관 정보학 세미나의 관심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표 2> 직급별 주제발표자 현황

직급주제	수	서	정	리	열	람	일	반	계(%)
5	1						2		3(6)
6	2		4		4		3		13(28)
7	4		1		4		1		10(22)
8	2				3		3		8(17)
9					1		1		2(4)
기능	1		1		1				3(6)
기타	1				1		6		8(17)
계	11		6		14		16		47(100)

2. 3 男女別 參與圖

남녀별 참여도는 <표3>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제11-24차 도서관 정보학 학술세미나까지 남자(62%)와 여자(38%) 사서들이 근무한 남녀직원수에 비례하여 비교적 고루 참여하고 있음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표 3〉 남녀별 참여도

회차	성별		남(%)	여(%)	계(%)
	개최대학도서관				
11	한국교원대(88.8)		47(55)	39(45)	86(100)
12	서울대(89.2)		52(65)	28(35)	80(100)
13	경북대(89.8)		74(71)	30(29)	104(100)
14	전남대(90.2)		68(65)	36(35)	104(100)
15	전북대(90.8)		65(64)	36(36)	101(100)
16	충남대(91.2)		37(49)	38(51)	75(100)
17	충북대(91.8)		49(64)	28(36)	77(100)
18	경상대(92.2)		54(71)	22(29)	76(100)
19	부산대(92.8)		58(66)	30(34)	88(100)
20	강원대(93.2)		42(48)	45(52)	87(100)
21	제주대(93.7)		57(68)	27(32)	84(100)
22	한국교원대(94.2)		25(34)	48(66)	73(100)
23	강릉대(94.8)		61(72)	24(28)	85(100)
24	공주대(95.2)		50(63)	29(37)	79(100)
계(%)			739(62)	460(38)	1199(100)

2. 4 主題別(課別) 發表者 現況

주제별(과별) 발표자 현황을 살펴보면 <표4>에서와 같이 일반주제(행정)와 열람 업무 및 수서업무의 주제발표자가 각각 16(34%)명과 14(30%) 및 11(23%)명으로서 사서들이 현장경험에서 느꼈던 점에 관심을 가지고 세미나 주제를 선정하여 발표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4〉 주제별(과별) 발표자 현황

회차	개최대학도서관	구분				계
		수서(%)	정리(%)	열람(%)	일반(%)	
11	한국교원대(88.8)			3	1	4
12	서울대(89.2)	1	1	2		4
13	경북대(89.8)	2			1	3
14	전남대(90.2)	2			1	3
15	전북대(90.8)	1	1	1	1	4
16	충남대(91.2)		1	2	1	4
17	충북대(91.8)	1			3	4
18	경상대(92.2)			1	2	3
19	부산대(92.8)	2		1		3
20	강원대(93.2)		1	1	2	4
21	제주대(93.7)		1	1		2
22	한국교원대(94.2)	1	1		1	3
23	강릉대(94.8)			1	2	3
24	공주대(95.2)	1		1	1	3
계(%)		11(23)	6(13)	14(30)	16(34)	47(100)

3. 圖書館 情報學 學術세미나의 問題點

국공립대학 도서관협의회의 간사로서 그동안 도서관 정보학 학술세미나에 참석하면서 느꼈던 점들을 종합한다면 다음과 같이 지적할 수 있다.

- 1) 모든 圖書館人들이 深度있는 연구를 통한 세미나 場보다는 外形의인 면에 특히 上位職(5급이상)의 참여도가 결여된 느낌이다.
- 2) 세미나에 참석한 司書들은 出張期間동안은 근무시간의 연장으로 생각하여 더욱 충실하여야 하는데도 그렇지 못한 사서들이 있다.
- 3) 劣惡한 근무환경에서 오는 피로와 갈등해소를 위해 관광지소재 대학에서 세미

나를 개최할 때에는 그趣旨와는 다르게 참여율이 저조하다.

- 4) 각 대학 사서들의 친목과 相互協力 增進을 위해 現場研修를 떠날 때에는 그 참여율이 적어 도서관간의 紐帶強化를 맺을 기회가 결여된 느낌이다.
- 5) 세미나에 참여한 사서들은 도서관의 代表者로서 참석하기 때문에 自館에 돌아 가면 그 內容을 傳授해야 할텐데 그렇지 못하다.

4. 結 言

대학도서관은 대학의 心臟府로서 교직원 학생들의 관심과 출입이 가장 많은 기관으로서 그 役割을 다하면서도 劣惡한 勤務環境과 낮은 報酬 및 社會의 認識度가 낮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1978년부터 24차에 걸쳐 1200여명이 참여한 圖書館 情報學 學術세미나가 오늘까지 지속될 수 있었다는 것은 國公立大學 圖書館協議會員들의 研究心과 協助가 아닌가 생각된다.

생각컨데, 어느 一般職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선비사상의 矜持와 自負心을 가지고 學問的인 理論과 現場經驗을 통한 산 知識을 배경으로 우리들의 資質向上과 情報서비스 改善을 위한 세미나 場이 되었으며 앞으로 지적한 諸 問題點들을 解消하면서 主體校의 司書들이 다함께 한 次元 높은 단계로 發展 昇華시키고 教育電算網이 형성되어 情報 專門司書들이 된다면 우리들의 役割과 機能이 존경받는 職種이 될 수 있다는 矜持를 갖고 스스로의 發展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